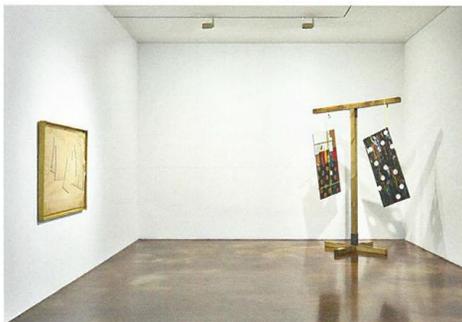


Endless Drawing

April, 2018 | by editorial

DESIGN & EXHIBITION



Endless Drawing

문의 국제갤러리 (02)735-8449 www.kukjegallery.com

국제갤러리에서 김용익의 개인전 'Endless Drawing'이 열리고 있다. 이는 작가의 회화 작품을 선보였던 지난 2016년 국제갤러리에서의 첫 개인전에 이은 두 번째 전시이다. 전시장에는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0여 년간 작업의 근간을 이룬 다양한 드로잉이 펼쳐진다.

김용익은 1970년대 작업 초기부터 순수미술을 지배하던 모더니즘적 흐름에 지속해서 균열을 만들어 왔다. 재료에 따라 회화와 드로잉을 구분하는 미술계의 관행에서 벗어났던 것이다. 대신 그는 내부적으로 닫힌 자기 완결적 완성태를 회화로, 외부적으로 열린 과정적 지속태를 드로잉으로 일컫는다. 완성된 회화에는 어떠한 첨가도 용인되지 않지만, 드로잉에는 지속적인 덧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과거 작품을 '관' 속에 안치시킨 작업과 허름한 포장재로 캔버스를 둘둘 싸맨 후 무심히 방치하는 최근작까지 이 모두는 그의 드로잉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종이라는 매체에 국한되어 있던 드로잉이라는 주체의 틀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롭고 열린 작품들을 선보인다. 김용익의 에코 아나 키즘적 기저에 흐르는 정의를 엿볼 수 있는 'Endless Drawing'은 4월 22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회화의 타자로서의 드로잉

